

## 승실철학강좌

- 제1회 (1999. 05. 13): 동서철학 매개의 미래 -조가경  
제2회 (1999. 09. 09): 한국미의 조명 -조요한  
제3회 (1999. 11. 18): 생활인의 철학 -김태길  
제4회 (2000. 03. 16): 한국철학의 정체와 전망 -류승국  
제5회 (2000. 05. 18): 플라톤 철학은 아직도 유효한가? -박중현  
제6회 (2000. 09. 21): 철학에의 권유 -최명관  
제7회 (2000. 11. 23): 문학과 철학 -박이문  
제8회 (2001. 05. 29): 새로운 세기, 동양사상 어떻게  
바뀌어야 하나? -김충열  
제9회 (2002. 11. 28): 기독교 전쟁관, 기독교의 평화관-김기순  
제10회(2004. 3. 25): 윤리학 연구의 방향 설정과 그 과제-진교훈

# 초 청 장

## 제 11 회 승실철학강좌



- ▶일시: 2004년 11월 25일(목) 오후 4시 30분  
▶장소: 승실대학교 정보관 102호

### 승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

☎156-743 ·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 
tel.: (02) 820-0370 / fax: (02) 824-4382  
e-mail: philosophy@saint.soongsil.ac.kr  
<http://philosophy.soongsil.ac.kr>

주최: 승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 
후원: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



## 행/사/순/서

초대합니다.

▶사 회: **박 삼 열** 박사

지난 봄 10회에 이어, 이제 깊어가는 가을에 제 11회 **송실철학 강좌**를 열게 되었습니다. 본 강좌는 철학을 전공하는 분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며, 나아가 자신과 이 사회를 성찰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

17:00-17:10 인사말 · 강사소개

17:10-18:00 **송실철학강좌**

오늘 강좌를 맡으신 박이문 교수님은 미국 보스톤 시몬즈 대학의 명예교수로, 그리고 연세대의 석좌교수로 계시며 동서양의 철학에 두루 정통하신 분입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 <존재의 의미나 기호의 의미나: 의미의 시원에 대하여- 하이데거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본 언어철학>입니다. 특히 최근에 작고한 데리다 사상을 의미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라 여겨집니다.

강 사: **박 이 문** 교수  
(서울대학교 명예교수)

제 목: **존재의 의미나 기호의 의미나**  
- 의미의 시원에 대하여

18:00-18:30 질의 · 응답

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송실 철학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지원으로 오늘까지 본 강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욱 더 내실 있는 강좌로 우리 철학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겠습니다.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.

2004년 11월 25일

**송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장 김 광 명**  
**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장 정 영 환**

### 〈강사소개〉

- 본명: 박인희
-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. 동 대학원 석사.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교 문학박사.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박사
- 이화여자대학교, 시몬즈대학교,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역임
- 저서: 『하나만의 선택』, 『철학이란 무엇인가』, 『현상학과 분석철학』, 『인식과 실존』, 『문학 속의 철학』, 『예술철학』, 『자비의 윤리학』, 『이성은 죽지 않았다』, 『상황과 선택』, 『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』, 『자연, 인간, 언어』 등